

**실내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선'(Zen) 스타일에 관한 연구

- 공간이미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Zen Style in Interior Architect

- Focused on the Image of Space -

김미옥* / Kim, Mi-Ok

Abstract

In the philosophical sense, a Zen teacher would probably say there is no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Zen? Zen is an approach to life, a way of being, rather than a philosophy or set doctrine. Modern living people quest for peace and tranquility has led designers and decorators to look to East to the natural harmony and blance of Asian home and to the simpicity of their art and design. Zen style interiors are simpicity and serenity. These imply the paring down of a cluttered environment and concentration on creating harmony, balance, touch, and texture. By achieving these things you can create a place where the spiritual or inner needs can be addressed and where you can indulge in calming or stimulating the senses with light, space, and free flow of energy In Zen interior we approach 'Homo · aesthetcus' by feeling and 'Homo · religious' by mind.

"Less is more", this phrase has made the pared down environment an interior form.

키워드 : 쯤 인테리어, 선(禪),환경, 감성공간, 자연, 절제, 균형, 단순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동·서 문화 교류 측면에서 실내 건축 디자인에 관한 필자의 연구는 '퓨전 스타일'(fusion style)을 연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21세기는 동서고금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마주해 있고, 그 지평을 이끌어 가는 제 원리들에 관한 고민은 단지 실내 디자인 분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¹⁾ '퓨전 스타일'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전통성의 조화로운 통합이다. 이 속에는 동·서양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장벽을 넘어 동시대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마도 21세기의 지구인이 직면한 문제는 '생태 및 자연 환경'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인간의 본질을 정의하는 명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환경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적인 인간'(Homo · oecologicus)은 우리의 주거 및 자연 환경,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부각시킨다. '환경'은 인

간의 외부 조건이나, 여기에 근거해 인간은 정신적, 물리적 삶의 조건을 구축해왔다. 문명화 과정은 다름 아닌, '환경'에 대한 대응이었고, 외적 조건으로 주어진 '자연'을 유용화 하는 목적론적, 도구적 합리성의 실현이었다.²⁾

산업화, 과학화, 기계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만든 '모던' 시대는 그 지정학적 요건을 '메트로폴리스'(metropolis)³⁾로, 그 개념이 '모더니티'(modernity)⁴⁾로 규정된다. '메트로폴리스'의 사

1) 줄지, 명왕조 시대의 좌구(坐具)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32호, 2002. 06. p.90 참조

2) Masti Calinescu, Five Faces of Modernity, 이영옥 외 역, 시각과 언어, 1993. pp.53-54

3) 메트로폴리스는 그 어원을 'matro'와 'polis'의 조합인 '모체도시'(mothercity)의 의미로 시작되었다. 일반적 의미는 도시적 현상이 인구 밀도, 지리적 특성, 구조적 유형, 면적 등의 관점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였으나, 20세기초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밀집'과 '균중'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거대한 네트워크와 유동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대한 기계"(A.올란드) 균중, 거대한 스케일, 무질서의 집합체로 해석되고 있다. A. Lees, The Metropolis and Intellectual: in Metropolis 1890-1940, Mansell, 1984. pp.64-70 참조

4) '지금, 현재'라는 말을 강조한 라틴어 'modo'를 어원으로 한 모더니티는 역사적 시기, 특징, 현상을 수반하는 용어으로써 '근대성' 혹은 현대의 경향을 나타낸 말이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의 특징을 결정짓는 개념으로 산업화, 기계화, 급전화, 개인성의 위기라는 토대 위에 동시성, 다면성, 익명성, 불확실성 등을 특징으로 조형의 분야에서는 왜곡, 해체, 추

* 정회원, 서일 대학교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 본 연구는 2002년도 서일 대학교 학술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회적, 물리적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시적이고, 빠르고, 임의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은 인간을 효용성의 관점에서 측정하고, 물질 팽배 및 획일화의 기준에 통제된 부정적 결과를 낳았으며, 종교와 자연의 요소를 인간으로부터 소외시켰다.

환경과 인간, 인간과 환경이라는 대응 관계는 상호적인 작용이다. 이 상호적 영향 안에서 건축 및 실내 공간 조형은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되었다. 특성상 외부조건으로 자연, 생태학적 조건, 환경 등을 상징하고, '감성적인 인간'(Homo · aestheticus), '종교적 인간'(Homo · religiosus), '제작하는 인간'(Homo · faber), 유희하는 인간(Homo · ludens)등, 육체와 정신에 관계되는 '존재하는 인간'(Homo · sum) 정의를 수렴하여 창조하는 공간은 그 주체가 인간이고, 그 목적이 인간의 영위에 있기에 인간의 존재적 고민, 조형예술성, 환경요소, 기술, 사회, 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는 시대 고민을 담은 복합체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인문학을 비롯한 서로 다른 영역간의 전과(inter-disciplinary) 및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근래에 실내 건축에서 회자되고 있는 '선'⁵⁾양식(Zen style)은 앞서 말한 문제들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주제이다. '선'은 동양의 불교 철학적 개념이나, 서양인들은 이것을 동양적 세계관이나 철학적 가치로 받아들여, 현대가 주는 위기에 대한 반성 및 개선, 자연으로의 귀환, 종교로 인한 정신성을 상기시키는 새로운 접근으로 이해한다. 실내 건축 및 장식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선' 사상을 응용하며, 넓게는 한·중·일 등의 아시아인의 생활과 주거공간, 가구 및 장식 등에서 영감을 얻고자 한다

동·서양 문화 사이의 상호 교섭은 단순한 모티브나 기술에 대한 차용은 아니다. 하나의 문명과 다른 문명의 만남은 독자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나은 것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과 동시대적인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 인간 정신의 외화(外化)라는 측면에서 공간과 장식은 단순한 영향과 모방 단계를 넘어서 '필연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형원리와 인문적 요소들이 융화되어 양식화 된 '선'스타일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접근을 시도한다.

1.1. 연구 방법 및 범위

본문에서 고찰할 '선'⁶⁾은 그 범주와 개념이 인문적으로 출발

상 등이 등장하였다. M. Calinescu, 이영옥외역, Five Face of Modernity, Duke of Univ. Press, 1987. pp.53-71 참조

5) 중국의 '츠안', 일본의 '젠', 한국의 '선(禪)'은 모두 범어의 '드야나'를 중국에서 한자음으로 음사한 '선나(禪那)'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선나에서의 뒤의 '나'자가 탈락되면서, 각 국의 고유한 독음에 따라 각각 츠안, 젠, 선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하 '젠(Zen)'으로 기술함. 동국대학교 불교교재 편찬 위원회, 『선(禪)과 자아』,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9. pp.5-10

6) 실내 건축분야에서 논의된 '젠'양식에 관한 논의는 실내 공간에 관계된

된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이것으로부터 기인되어 나타난 '선'양식을 고찰함에 앞서, 종교적, 미학적, 조형학 등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본문의 전개는 1. '선'의 서구 유입과 수용 배경을 살펴보고 2. 종교적 개념인 '선'의 종교적 의미와 미적 특성을 조명하고, 3. '선'의 미적 개념이 가시화 된 실내 건축 및 장식의 공간 이미지를 한정하여 연구한다.

2. 본론

2.1. '선'의 서구 유입과 배경

현대 사회의 인간은 과학 기술의 발전, 경제, 정치 문화의 변화로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즐거움을 맞이하였지만,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상업주의의 팽배, 에너지 위기, 식량 부족, 공해 문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심리적 동요와 불안, 욕구의 갈등, 개인의 소외로 인하여 자연의 순수성과 정신적 여유로움, 인간성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⁷⁾ 특히, 서양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대응하여 다른 유형의 삶의 방식에 주목했는데, 이 결과 비서구, 즉 동양의 종교, 철학, 예술 등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들에게 중국과 일본의 '선'불교, 인도의 힌두교 등의 종교 사상은 개인적인 욕구나 지나친 사회적 성취 욕구를 배제하고,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삶을 표방한다.⁸⁾

이러한 근거에는 인간의 삶이 영위하는 두 개의 지평이 공존한다. 말하자면, 생존으로서의 인간 조건과 우주나 신, 초인간적인 영역에 관계하는 조건들이다. 고도로 분화되어온 현대 사회 속에 초인간적 요소들이 합리적·계몽적 요소로 대체되고, "신의 죽음"(F.니체)을 선언 할 정도로 종교와 유린된 서구 사회 속에서 현실에 결핍된 형이상학적 열망은 예술, 문학, 철학, 종교에서 애매하고 단편화된 개별성의 불안, 불확실한 존재의 두려움, 소외 등은 현대적 인간 경향으로 드러난다. 현대인의 이른바 '망각된 종교' 가운데 성(聖)과 자유에의 욕구는 다

전문지 <월간플러스>, <매종>등에서 1999년에, 매일 경제 신문 2000.06.09에서 소개되었다. 그 외 학술 논문으로 「젠 스타일을 응용한 텍스타일 연구」, 「beat Generation Hippie의 복식 문화와 관계된 선·노자사상의 관계성 연구」, 「현대 패션의 젠 스타일에 관한 연구」, 「CAD System을 이용한 젠 스타일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 「젠 디자인 개념을 통한 실내 공간에서의 전통적 요소의 이미지화에 관한 연구」, 「20세기말 공(空)사상으로 표현된 젠(선) 스타일」의 제목으로 나타났다.

7) 20세기말의 세기말적 불안과 함께 정보화 기계화가 이룩한 규격화된 삶에 대한 회의, 물질 문명에 대한 반성은 특히, 미국에서 60년대 말 70년대 초를 배경으로 극대화되었다. 이것은 비인간화 양상에 대한 불만과 자유를 의미하는 '히피'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기독교적 가치관 중심의 미국 사회의 단조로움, 진부한 대중 문화에 염증을 느끼는 미국적인 생활 양식으로 반전, 부정부주의, 자연주의적 삶과 '선'적인 생활 방식을 지향한다. T.A.Tweed, Asian Religions in America, Oxford Univ. Press, 1999. p.342.

8) Uelen Westaest, Zen in the Fifties: in interaction in Art Between East and West, Geboren to Otahuhu, 1996. pp.54-55

만 더 이상 전통적인 종교 언어로 표현되지 않을 뿐, 여전히 무의식 안에 잔존해 있다.⁹⁾

서양인들은 '현대성'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으로, 서양 철학에서 제시했던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 자유에의 회복, 자연에로의 복귀를 기독교적 전통의 일맥에서 벗어나 동양의 종교에 관한 다각도적인 접근을 시작하였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불교와 서양세계의 만남이다”¹⁰⁾라고 했듯이 서양인들이 '선'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종교와 기독교와의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서구에 유입된 불교 사상은 18세기 계몽기부터 활발해진 동서 문화 교류에 이바지했는데,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양 사상 내부에 융해되기 시작하여 1차 대전 직후에는 그 관심이 증가되었다. 칼 융(C.G.Jung), 이오네스코(Eugene Ionesco), 헤르만 헤세(Herman Hesse)가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외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등 적지 않은 근대 서양의 저명한 석학들이 동양 사상에 관심을 쏟았다.¹¹⁾ 특히 미국의 '선' 사상의 유입은 1893년에 소엔 샤쿠(Soen Shaku, 1859-1919)라는 선승이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서 '선' 사상을 강연한 이래, 스즈키 다이세츠(Daisetz.T.Suzuki)의 『선학 논문집』(Zen Essays, 1927)과 선불교 관련 저술이 영문으로 출판되어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49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초청강사로서 선 스즈키 다이세츠의 강의에는 존 케이지(John Cage), 라인하르트(Reinhardt), 필립 거스톤(P.Guston), 칼 융 등이 참석하였다. 1950년대의 '선'에 대한 관심은 '선'사상, 선화(禪畫), 서예, 선시(禪詩)에 관심이 급증하여 '선붐'(Zenboom)이라고 불리었다.¹²⁾

특히, 이시기에 예술에 반영된 '선' 사상은 그래피즘(graphism), 부호, 글씨에 관계하여 서예와의 결부되었고, 흑·백의 선과 얼룩 등에 의한 순수한 조형이 서예의 '무아'(無我)와 '탈아'(脫我)를 상징하는 것으로 서양인에게 이해되었다. 회화에서는 동양의 '무위자연'(無爲自然) 개념이 우연성과 무의식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일예로, 라인하르트의 '서체화'(Calligraphy)는 동양의 서체를 주요 모티브로 한 '흑색 회화'이며, '공(空)'과 서양의 '무한'의 개념을 융화한 것이다.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선' 사상은 서구 근대 계몽기를 거쳐 1,2차 세계대전이후의 허무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삶과 예술 및 문화 전반에 깊숙하게 침투

되었으며,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 서구 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철학적 사고로 인식되고 있다.

2.2. '선'의 개념과 특성

'선'은 인도에서 기원되어 중국과 일본을 거쳐 이룩된 불교 개념으로써, 중국의 정신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노자사상의 영향을 받아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을 강조하고 존재와 우주의 근본을 깨닫고자 하는 무신론적 종교이며, 철학이다. 그 방법을 '마음을 한곳에 모아 고요히 생각하는 일', '사유수(思惟修), 즉 '명상'으로 하나 그 접근방법이 이론적이기보다는 일상에서 실천을 강조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경험에 근거한 체험을 통해 모든 개념을 이해하고, 순수한 직관을 통해 본질적 가치를 꿰뚫는 것이 '선'의 근본이며, 이것은 인간 존재 내부로 이행하여 모든 육체적, 정신적 방해물로부터 자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³⁾

'선'의 수행을 통해 경지에 이르면 자아의 발견과 '주객일여'(主客一如)에 이른다. 선은 일종의 종교 철학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선'을 숭배하는 종교는 아니다.¹⁴⁾ 이러한 점에서 서양인들에게 '선'은 신격을 숭배하기보다는 삶 안에 도입되는 동시대적인 동양의 정신적 가치이며, 자연과 유린되지 않는 삶, '단순함'과 '평정'을 희망하는 정신적 삶을 대변한다. 이러한 삶은 '단순함'과 '평정'을 취하여 영혼의 내적 욕구들에 대한 대응, 자연의 관조, 육체와 정신의 조화와 균형의 상태에 도달하려는 생활 그 자체를 의미한다.¹⁵⁾ 그러므로 '선'은 자유로운 무형식의 상태, 즉 '공'(空)의 상태로 순응하는 태세이며, 외부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공'의 자각이며,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초월적인 '해탈'의 경지이다.

'공' 사상은 존재의 본질적인 근원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맥을 이룬다. '공'은 허무의 '공'이 아니라, 자아가 확대되는 체험의 경지로 해탈을 말하는 무아의 세계, 자유의 경지를 일컫는다. 『반야심경』의 “물질은 공이요, 공은 물질이다”(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은 '공'사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으로, 인간이 현실에 있으면서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공'은 의식에서 미와 추, 진, 선, 미를 초월한 절대 합일의 비위있는 근원이고, 항상 채워 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열린 총만이며, 자연의 기운이 가득 찬 우주이다. 또한 자연과 연속된 공간으로 자연과 정신적으로 연결된 무한대의 영역이며, 자연과 나가 하나된 세계이다.¹⁶⁾

9)M. Eliade, Symbolism, the Sacred, and Art, the Crossroad Publ. Co., New York, 1985. pp153-159
10)정진일, 서양의 지혜와 동양의 지혜, 청암미디어, 1994, p.3 재인용
11)G. Gelburd, The Trans Parent Thread: Asian Philosophy in Recent American Art, Hofstra Univ. Press, 1990. p.17
12)Uelen Westtaeast, 같은 책, pp.56-58

13)D.T.Suzuki, An introduction to ZEN BUDDHISM, Grove Press, Broadway, 1964. pp.38-41
14)林愚鏡, 久松眞一, 森本省念, 「悟り」, (一),(二),(三), 『講坐 禪』(全八卷), 卷一, 第塵書房, 東京, 1967, pp.29-58
15)A.Watts, What is ZEN?, New World, California, 2000. pp.10-18참조
16)동국대 교양교재편찬위원회, 선과 자아,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9.

선사상에서 뿐 아니라 동양의 노자 사상 속에서도 자연은 자연 현상의 신비적 근원을 존재적·생성적 근거에서 묻기보다는, 만물이 합일(合一)을 이룬 자연을 강조해 왔고 자연과 인간과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해 논리적 인식으로 규명하기보다는 자연과의 일치를 통해 화해의 일체감을 강조한다. 이 속에서 형성된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은 무의식적이고 목적이 없는 자연 활동과 자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질서와 조화로움을 이끈다. 자연과의 합일에는 생명 있는 존재로부터 무생물의 존재에 이르는 화합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선을 수행하는 것은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인위와 인공을 배제하고 본래 그대로의 것을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자연성을 익히는 것이다.

2.3. '선' 예술과 미

'선' 예술의 참된 모습은 '공'사상의 절대간의 무분별, '불이'(不二)를 통하여 현실과 이상을 구원하면서 현상세계에서는 선 예술, 선문화로 나타난다. 선문화란, 선사상과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뜻하며, 문학, 다도, 음악, 미술, 서예, 춤, 무예 등의 다양한 장르로 표현된다. 선시와 다도로, 선시는 깨달음과 희열, 자연과 함께 하는 즐거움, 낙도, 무소유를 일컫는다. 특히 다도는 차를 마시며, 일생생활 속에서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실천적 수행을 일컫는다. 이러한 선문화는 일반인들에 생활 전반에 새롭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선 예술은 가식과 꾸밈이 없는 일체의 형식을 초탈한 '무언', '무심'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도 없이 순수 그대로 '청정탈속'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자연적인 표현이다. 하사마추 신이치는 '선' 예술의 참된 모습을 현실에로의 귀환이라고 보았고, 진실한 자아가 '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선 예술의 미는 근원적으로 '공'에서 출발하여, 공간을 공간으로서 근원적으로 비우고, 일체의 사물을 집합시키고, 무상함을 현현 하는 무심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공'에 기원을 두고 있는 '선'예술의 일곱 가지 성격을 '불균제', '간소', '고고', '자연', '유현', '탈속', '정적'이라 정의했다. 여기서 '불균제'란 완전에 대한 파격을, '간소'란 무욕을, '고고'란 감각의 절제를, '자연'이란 무기교를, '유현'이란, 깊이를, '정적'이란 정중(正中動), 동중정(動中正)의 모습을 의미한다.¹⁷⁾ '선' 예술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특성은 미와 추를 초월한 '합일', '일체', '일여'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¹⁸⁾이것은 반대되는 두 개념, 즉 '부조화 속의 조화', '규칙 속의 비규칙', '비정형의 정형' 등 대상에 관한 인식이기보다는 감성의 추상적인 이지(理智)를 통해 직관

pp.120-125

17)김호귀 역, 현대와 선, 불교시대사, 1994. pp.226-227

18)Shin' ichi Hisamatsu, Zen and Fine Arts(trans. by Gishin Tokiwa), Kodansha International LTD., New York, 1982. pp.28-38 참조.

과 상상, 감성적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적 체험이 내재해 있다.¹⁹⁾ 이러한 점은 일본의 선 예술에서 외로움, 소박함, 가난함을 표현하기 위한 '와비'(わび)라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면 잘 알수 있는데, 초암에 사는 은둔자의 빈곤함과 그로 인한 세속에의 초월을 나타내고 절제 소박, 간소함을 통해 깊은 풍요로움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사상의 본질적 의미와 미적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불이'의 미는 모든 이원적 대립이 사라진 일체의 미적 세계로 모든 대립을 초월한 절대합일의 경지를 말한다.
- II. '불균제'의 미로 억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무형식의 상태로 모든 속박과 규제의 벗어남 이다.
- III. '빈곤'의 미로 절제, 가난, 소박 등의 순수한 인간의 본질을 붙잡으려는 무상함이다.
- IV. '자연'의 미로 자연과 나를 하나로 인식하며, 눈에 보이는 유의 세계인 '양'과 보이지 않는 세계인 '음'이 하나로 귀결되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일치이다.

2.4. 실내 건축에서 '선' 양식

본 장에서는 실내 건축 및 데코레이션 스타일로 알려진 '젠' 스타일에 대해 공간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고를 전개하겠다. '젠'이라 불려지는 그 어원 및 사상의 특징은 앞서 요약했다. '선'의 사고 방법이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야 즉, 일상에서 실현하고자하는 독특한 실천 철학의 방법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뜻은 실내 건축에서는 주거 방식에 새로운 건축 및 장식 스타일을 야기 시켰다. '선'사상과 건축 및 장식 스타일의 상관관계를 본 장에서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하겠다.

실내 건축에서 회자되고 있는 '선' 스타일의 특징은 일반적 의미로는 '미니멀리즘의 오리엔탈화'²⁰⁾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서구인들은 선 철학이 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했으며, 그것이 자기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주거 공간은 우리의 감성과 휴식을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간이 지닌 가장 작은 디테일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인 아이템을 이끌어내어 그 상관 관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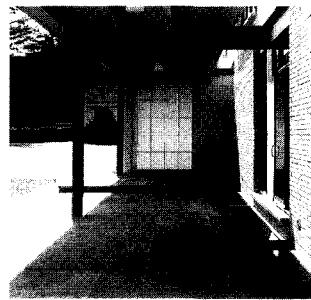
(1) '비움'의 공간

'선'양식에서 '비움'은 공간을 디자인하는 중요한 영감이다. '비움'은 '공'개념에서 비롯된 무욕(無慾), 무소유는 '소박', '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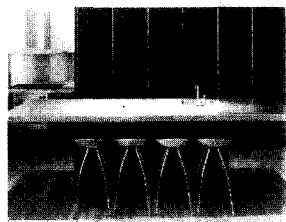
19)Shunryu Suzuk, Zen Mind, Beginner's Mind, Weatherhill, New York, 2001. pp.41-49

20)J.Tidbury, ZEN style-balance and simplicity for your home, Universe Publication,1999. p.8

을 뜻하며, 물질적 가치를 초월한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의미한다. 동양의 전통건축에 보여지는 오더를 좌우 대칭의 형태로 이용하고, 안정감을 주는 수평선을 통해 바다, 천장에 적용한다. 이것은 공간이미지를 동양의 사원(寺院)의 분위기로 연출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장식을 배제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것을 동양의 선승들의 주거지와 생활소품, 장식에서 발견했다. 극도로 절제된 선과 완벽한 기능을 위주로 인공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화려함에서 간결함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이행하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단순성'은 '선' 양식의 최종적인 공간 구성 요건이다. 이것은 미니멀리즘 양식에서도 언급되는 특성으로 미니멀리즘에서는 '최소의 매개', '극단적 단일의 요소'로 이해되었다.²¹⁾ '단순성'은 수평과 수직의 면 분할을 이용하여 기둥에 최소한의 파티션만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할한다. 내부공간은 깊이를 강조하는데, 파티션들을 통해 사이사이의 열린 공간들이 중첩되어 내부 공간의 개방성을 유도한다. 각각으로 나누어진 공간의 내부는 다른 공간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며, 내벽의 큰 창을 통해 외부 공간과의 단절감을 되도록 감소시킨다. 유리와 나무를 이용한 수직적인 파티션들은 공간을 정적인 차분한 분위기로 인식시킨다. 또한 파티션에 매입한 조명은 공간의 입체적인 연출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매입 조명은 공간의 색채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중성색을 통해 공간의 색채이미지를 균일하게 주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사진 1>
출처 : Zen Interiors p.36



<사진 2>
출처 : Zen Interiors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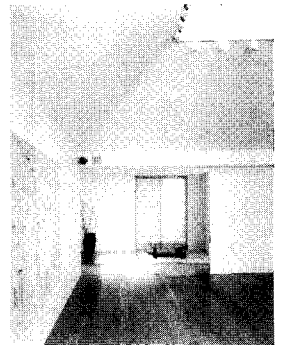
개방형으로 구성된 공간의 전개는 깨끗한 선과 직선적인 공간조형을 통해 동선의 좀더 유동적인 흐름을 창조한다. 동선은

21) 미술에서 보여졌던 '추상'적인 예술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일치시켰던 미니멀리즘은 1990년대 이후에 건축 및 실내 건축 분야에서는 지역성과 맞물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젠' 스타일은 미니멀리즘적인 양식의 일환이라고 해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두 양식이 보여주는 공간의 이미지는 단순함과 절제로 공통되지만, 미니멀리즘이 표방하는 비현실의 이미지를 반영한 추상 공간과 젠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현실적인 구상 공간은 다르게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조형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Quim Rosell, mnm-Minimalist Interiors, HarperCollins Publ., 1999, pp.1-8참고

철저하게 기능적인 입장에서 고려되는데, 공간의 구분을 최소화하여 여백의 공간을 두어, 여유 있는 공간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평으로 넓게 확장된 창문은 공간 안에 빛을 풍부하게 하여 신선함과 활력을 증감시킨다. 또한, 공간은 문을 제거하고 넓게 퍼진 출입구 방식, 동양의 발과 같은 형태의 천을 사용하여, 스크린과 같은 패널을 만들어 섬세하게 구획한다. 바닥은 테크와 마감재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공간을 더욱 확장하게 보이게 하고, 공간을 의도적으로 비어둔다. 또한 유리와 나무로 공간의 막힘과 트임을 중첩하여 정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사진 4>
출처 : Zen Interiors p.154



<사진 5>
출처 : Zen Interiors p.6

이러한 구성은 내벽의 다양한 매개 관계를 이용하여 비우는 공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것은 더 많이 비울수록 공간적 진실에 가까워지는 동양적 공간관과 형태적 맥을 같이한다. 창과 공간을 연계한 공간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구분을 없앴으로써 동양적 정서를 상기시킨다. 동양의 전통건축에서 보여지는 창은 채광과 통풍을 위주로 한 것으로 비교적 벽이 단순한데 비해서 창호는 반대로 공간의 정서 변화를 느끼게 해주고, 창호의 짜임새 모양을 통해 내부 공간에 빛과 그림자의 울동적 움직임을 투영시킨다.

넓은 창문에서 보여지는 수평과 수직선의 교차적인 선들의 '균형'은 동양의 실내에서 보여지는 봉창²²⁾, 광창²³⁾, 교창²⁴⁾, 눈곱재기 창²⁵⁾의 형태들은 '선' 양식에서는 내벽의 파티션이나 유리창의 문양에 응용된다. 특히 눈곱재기 창은 밖을 내다보기 위한 특수기능을 지닌 아주 작은 창으로 출입문 곁에 난 봉창, 광창에 유리를 끼워 밖을 내다볼 수 있는데, '선' 양식에서는

22) 창이 없이 구멍만 뚫린 여닫지 못하는 작은 창으로 천공의 창, 불박이 창이라고 한다.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는 창의 원형이며, 토벽을 뚫고 판대기를 얹어 놓음으로써 창틀이 없는 채광, 통풍구의 역할을 하였다.
23) 실내에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광창은 봉창이 발달하여 생긴 창으로 방의 벽 위쪽이나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창이다. 살대를 꽂아 만든 것과 살대를 무리로 엮어 만든 형태로 볼 수 있다.
24) 부엌의 벽이나 광의 벽에 높이 설치하거나 건물의 정면 분할문 상부에 가로로 설치하는 창으로 장방형의 울거미를 짜고 살은 45도 경사각으로 교차시켜 짜 넣는다.

내벽에 매입된 문양이나, 정원을 내다보는 벽에 전면으로 끼워진 형태로 보여진다. 벽과 창호와 이루는 작은 방향의 비례와 균형미는 창호의 구조재를 목재로 하여 벽의 투명함과 아울러 단아함을 준다. 큐브 프레임(cube frame), 목재 프레임, 유리면, 투명한 벽은 창호를 통해 태양의 이동, 날씨의 흐름과 맑음, 계절 등에 따라 실내 공간의 최종적인 모습이 무한히 다양해지도록 연출하며, 다양한 공간 화면을 구성한다.



<사진 5>
출처 : Zen Interiors p.39



<사진 6>
출처 : Zen Interiors p.52

선의 '공'(空)과 통하는 것으로 꾸미지 않는 주거는 선문화의 '다도'에서 기원된 것으로 다실이나 선승들의 '방장'(약 사방 3미터 공간)에서 보여지듯이 원형, 사각형의 바닥을 절반이 상단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 책상, 의자, 선반 등의 가구를 놓는다. 가구들 역시 간결하고 단순한 장식을 최대한으로 형태를 절제하고 자연 목의 질감과 색상을 부여하여 단아한 멋을 지닌다. 결국 선 양식의 주거 공간은 '의도적인 빈곤'을 보임으로써 일상의 과도한 감정의 분출을 절제시키고, 생활의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는 균형을 중시해 둔다. 공간 구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절제된 감각을 보여주는 공간 표현과 간결함과 여백의미를 살린 공간 구성은 기능과 조형 면에서 단순성을 특징으로 한다.

위의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공간 구조의 전개 방식은 공간과 공간의 연계방식이 개방형이 되도록 한다.
- B. 빛은 선풍함과 생명성을 상징하는 매개로 우리에게 활기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으로 중요시된다.
- C. 단순성은 인간의 영혼을 내성화하고, 정신의 산만함을 치유하기 위한 컨셉으로 활용된다.

(2) '자연'과 '감성'의 공간

실내장식에서 선 양식은 색채와 오브제들을 이용하여 인체의 '바이오 리듬'²⁵⁾ (Biorhythm) 이나 환경조건을 감성학적으로 고

25) '바이오' 리듬은 인체가 일정 기간을 주기에서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신체 내부로부터 야기되는 '신체리듬', '감성리듬', '지성리듬'이라는 세 가지 리듬을 기초하고 신체적 요인들과 창조성, 감수성, 정신건강, 기억, 지식의 수용, 논리성, 분석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생물학적 의미로는 유기체의 순환 과정으로 설명된다. '바이오' 리듬은 그 원인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과 환경조건에 있다는 두 가지 이론으로 대비된다.

려하여 일상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 흙, 물, 불, 나무의 4원소의 요소와 동양의 음·양 오행의 입장에서 제기된 흙, 불, 나무, 공기, 쇠 즉, 오행에 의거해 색채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이것은 인공적인 환경에 자연을 도입하고, '조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양인들은 4원소에 표방된 조건들이 불충분하게 표현되었을 경우에는 색채를 사용하여 불균형상태를 시정한다.²⁶⁾

벽의 색채는 미니멀리즘에서 보여진 '백색의 모노크롬'(monochrome)은 사라지고, 빛의 반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은은한 색조인 크림색, 겨자색, 옅은 그린, 스카이어 블루, 레몬색 등을 이용하여 하거나, 특히 분벽, 회마감을 통해 차분한 이미지를 준다.²⁷⁾ 이러한 벽이 주는 투명함은 '자유'를 암시하며, 긴장감을 탈피하여 휴식과 편안함을 상징한다. 특히 색채가 주는 시각적 인상에 근거한, 예를 들어 차가움은 파란색계열, 뜨거움은 오렌지색계열 등과 같은 색채상징은 '선'의 음·양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일상에 부여되는 리듬과 균형을 상징한다.

특히, '선'은 무엇보다 '일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일과 휴식의 생활리듬의 균형감각은 가구의 모양과 위치에까지 섬세하게 작용된다. '선' 양식에서 가구들은 작은 형태들이 선호된다. 작고 장식이 없는 실용적으로 디자인된 작은 테이블이나, 의자들은 부드러운 울 소재의 패브릭에 의해 표면이 감추어지고, 이동하기 쉽다.

선 양식은 인위나 인공의 요소들을 멀리하는데, 특히 이것은 자연성을 근본으로 한 재료의 사용에서 발견된다. '물성'이란 재료가 축조과정을 거쳐 변하기 이전의 물질성을 말하는 것이며,²⁸⁾ 특히 물성을 인체의 촉각적인 부분에 부각시켜, 재료의 '질감'을 균형 있게 배치한다. '선' 양식의 절제된 공간 속에서 촉각과 질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 질감으로 구성된 나뭇가지, 돌, 식물, 흙, 등의 직접적인 자연의 오브제들은 촉감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훌륭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자연물을 장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연의 유기적 형태와 질감

임연용, 디자인 인간공학, 미진사, 1994. pp.252-255.

26) Vinny Lee, Zen Interiors, Stewart Tabori & Chang, New York, 2000.23-24.

27) '회마감'은 동양의 전통건축에서 강회, 백토, 모래를 같은 비율로 섞어 벽에 고르게 발라 마감하는데, 백자 빛의 하얀분이 오르게 되어 분벽이라고 일컫는다. 박영순, 우리 옛집이야기-한국 전통 주택의 실내 공간, 열화당, 1998. pp.95-96

28) '물성'의 개념은 미니멀리즘 양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질로 형태의 최소화과 아울러 근본적인 요소로 정의되어, 근대적 즉물성을 가리켰다. 미니멀리즘에서는 사물 하나가 갖는 완결된 표상을 최소의 단위 혹은 형태, 근본으로 파악 하므로써, 미술에서는 예술가의 임의성, 조작에 반대해서 생긴 개념이다. 건축에서는 콘크리트로 축조된 상태를 물성의 개념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보았는데, 이 관점은 재료의 순도 측면에서, 또는 콘크리트 위에 가해지는 어떠한 재료의 성질을 배제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적인 형태와 결부되어 극대화되는 물성은 재료라는 것 외에 상징(Symbol)이나 도상(icon)을 암시해서는 안된다.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뉴욕5건축과 공간운동』, 시공사, 1999. pp.97-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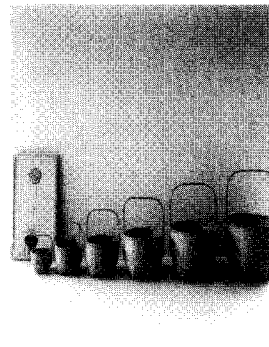
이 인간에게 단순한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가구와 섬유에 이용된 자연물의 형태나 질감은 면, 마, 실크, 모 등의 천연섬유와 가공되지 않은 생지 상태의 소재를 사용하며, 거칠은 생사, 황마, 라피아(야자와 식물)로 짠 영성한 표면을 가진 자연 소재의 불규칙한 표현을 지닌다. 이러한 소재는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색상과 저명도, 저채도의 색상으로 베이지, 그린, 그레이, 브라운과 같은 색채이미지를 지닌다. 인위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한 무늬나 질감을 통해 도시적 감성을 탈출하여 바다, 산, 들의 자연환경을 떠올리게 하는 한편 모래나, 돌, 흙의 무늬와 색채를 통해 시간의 순환과 같은 영원의 이미지를 상징한다.²⁹⁾

공간 안의 오브제들은 자연 소재의 소품과 동양풍의 소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동양풍의 장식성은 간결한 공간에 따뜻한 시적 감성을 일으킨다. 선 이미지와 관련하여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간결의 미, 생략의 미, 정적인 미의 이념은 일본에서는 '고요한 정서(와비, 侘び)', '예스런 운치(사비, さび)' 등의 말이 일컬어진다.³⁰⁾ 선의 적막한 공간에 부여된 흙 자체로 구어진 소박한 다기 속에 놓여진 꽃 한 송이와 같은 시적인 정취는 도리어 응축된 효과이지만 공간을 여백화 하여 넉넉하고 풍요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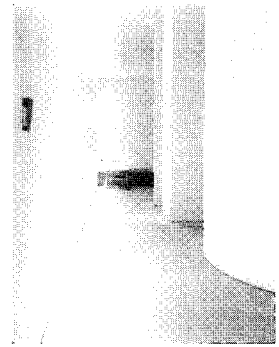


<사진 7>
출처 : Zen Interiors p.139

이러한 오브제들에는 '선'의 가르침이 배여 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소유는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같은 짐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운 형태들을 감상하고 명상하는 것은 선의 일부이다. 오브제들은 자연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이런 것은 자연의 불멸성을 상징한다. 특히 명상에 필요한 실용적인 도구들로 고안된 오브제들은 공간에 숨겨진 보물과 같이 시각적으로 시선을 응집시킨다. 이러한 오브제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태와 기능의 결합이다. 특히 도자기와 같은 공예품들은 비정형적인 형태들로 고안되었으며, 독창성을 중요시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또한, 서예와 같은 예술도 '선'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몇 마디 말에 응축된 선의 가르침은 선시를 대표하는 것으로 벽에 장식되기도 한다.



<사진 8>
출처 : Zen Interiors p.12



<사진 9>
출처 : Zen Interiors p.35

일상적 오브제들에 자연의 질감을 되살려 촉각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창호를 통해 보여지는 정원과 이것을 공간 안에 도입한 특성은 zen 스타일의 자연성을 완벽하게 보완한다. 자연을 축소화한 정원은 휴식과 자연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동양적 개념에서 정원(庭園)은 본 채 앞의 공간을 가리키며, 정원은 풍수설의 음·양의 조화를 통해 배치된다.³¹⁾ 정원은 전통 건축에서 '중정'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실내 공간 안에 과감히 도입하였다. 녹색식물과 돌,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 작은 분수를 만들어 청각과 촉각의 감각을 상기시키는 작은 정원들은 '정계'를 상징한다. '선' 양식의 정원은 생활에 휴식과 명상 등 치료적인 효과를 도입하는 것으로 고안되었다. 이러한 정원에는 '선'의 철학이 응집되어 있고 이것의 원류는 일본식 정원이다. 정원은 한 조각의 물질적인 자연이지만, 우리들을 정관(靜觀)적 존재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정원은 지나간 시간이 축적되어 있으며, 명상을 야기 시키는 공간으로 정원 그 자체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 대한, 존재의 완전한 정적에 대한 명상을 의미한다. 정원을 구성하는 배치는 임의적이면서도 필연적인 것이 특징이다. 전체를 해치지 않으면서 바뀌거나 교체 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은 '불균제'이다. '선'관념이 응축된 정원은 우리에게 정신적 '내향성'을 요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정원은 우리를 '명상'으로 초대한다.

장식 문양에서는 '선'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신성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무늬와,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 꽃과 나무의 식물의 형태가 주로 이용된다.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패브릭에 소재 자체를 문양으로 하거나, 단일한 색, 동양적 문양에 현대성을 가미하여 자연성에 토대를 둔다.

앞서 기술한 '선'을 응용한 실내 공간의 이미지는 간결성, 절

31)동양에서 정원은 정과 원이 합쳐진 말로써 원은 인공의 힘에 의해 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들이며 경관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정원을 '원림'이라는 자연성이 강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의 정원은 울타리 안의 뜰과 밖의 들을 보는 특색이 있으며, 일본은 기교를 부려 선불교의 정적이 감도는 작은 공간으로 사색을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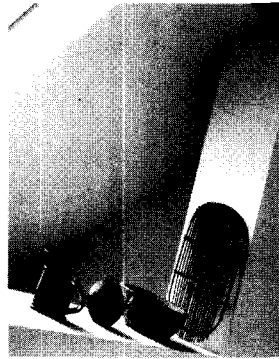
29)Vinny Lee, 같은책, pp. 138-140

30)辻性雄, 日本美術の見方, 이원해역, 시공사, 1994. pp.72-75

제미, 순수미, 여백의 공간미 등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연적 이미지와 따뜻함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표현에는 실내디자인 요소가 되는 천장, 바닥, 벽의 구조물을 비롯해, 색채, 조명, 조경, 가구에 이르는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의 이미지들은 우리의 전통적 이미지와 다를 것이 없고, 실제적 형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전통적 요소가 응용될 수 있다.



<사진 10>
출처 : Zen Interiors p.108



<사진 11>
출처 : Zen Interiors p.144

위의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자연물의 무늬와 컬러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 세계의 미와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매개체이다.
- B. 촉각의 경험을 통해 감정과 연관되는 매개로 사용되는 다채로운 질감을 통해 공감각적인 감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된다.

앞서 서술한 '비움', '자연과 감성'의 공간 이미지를 주거 건축에 활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선 사상과 실내건축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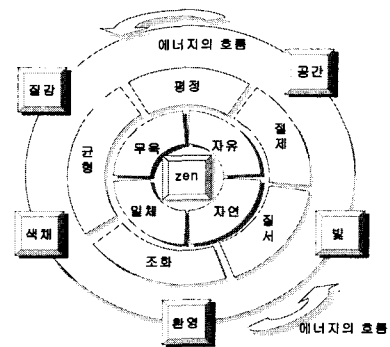
구분	내용
공간	- 전반적으로 절제된 감각을 보여주는 공간표현 - 간결함과 여백의미를 살린 공간구성
형태	- 단순화된 디자인 -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운 선 - 절제의미를 강조 - 단순함과 간결함
색채	- 자연적인 동양적 색채 가미 - 화려한 색보다는 중후하고 깊이 있는 색조사용 - 무채색의 평안함 추구 - 절제된 컬러 사용
질감	- 자연소재가 주는 내추럴한 감촉 - 린넨, 코튼, 실크 등의 천연소재 사용
소품	- 초와 향 등의 오리엔탈 소품 - 자연소재의 소품 - 미니멀한 소품

3. 결론

현대의 공간 구성의 원리는 다분히 대중의 문화적, 혹은 소비 호응도에 의해 좌우되었다. 조형에 있어서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전개된 공간은 1960-1980년대 들어 자유정신을 구가하며 다양한 진로, 예를 들어 팝, 모더니즘-포스트 모더니즘 등 서구 문화의 모든 경로를 유입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대의 실내 건축은 조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존재 문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전환기에 들어섰다.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의 입장을 주장하는 생태 건축의 흐름은 실내 건축 분야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제기된 1990년대의 '선' 양식은 앞서 기술한 인간과 환경의 주제를 압축되게 느낄 수 있는 주제이다. 현대인의 존재 상황에 대한 대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선' 양식은 모던적인 공간 이미지에 반대한다. 기능과 효율에 과도하게 집중된 적재성에 반대하고, 도회적 감각과 일상에서 벗어난 추상적 이미지들에 반대하고,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반대한다.

'선'의 가르침이 시사하듯이 그것은 일상에서, 자연에서, 느낌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것들은 실내 건축 및 장식으로 구현되는데, 그것을 '비움'의 공간, '자연' 공간, '감성' 공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실내 건축 및 장식으로 구현된 선 양식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비움'의 공간은 '선'의 '공' 개념을 토대로 무욕과 자유를 영감으로 하여 조형적으로 단순성에 의거한다.
- II. '자연' 공간은 자연 대상에 부여된 질서와 조화를 통해 자연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 III. '감성' 공간은 '선' 양식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간에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공감각을 공간 안에서 느끼도록 한 것은 감각을 통해 '체험'을 강조한다.



<그림 1> '선' 사상과 실내건축원리

'선' 양식은 비움, 자연, 감성을 기저로 하여 조형적 원리를

절제, 질서, 균형, 조화의 미에 근거했다. 공간, 절제, 빛, 환영, 색채, 질감으로 나누어진 공간과 장식은 현대인의 과잉과 사치, 과학 기술로 인한 자연 훼손, 정신의 타락을 치유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1. Vinny Lee, Zen Interiors, Stewart Tabori & Chang, New York, 2000.
2. T.A.Tweed, Asian Religions in America, Oxford Univ. Press, 1999.
3. Audrey Yoshiko, The Art of Twentieth-Century Zen, Shambhala, Boston, 2000.
4. Shunryu Suzuk, Zen Mind, Beginner's Mind, Weatherhill, New York, 2001.
5. D.T.Suzuki, An introduction to ZEN BUDDHISM, Grove Press, Broadway, 1964.
6. M. Eliade, Symbolism, the Sacred, and Art, the Crossroad Publ. Co., New York, 1985.
7. U.Westaeest, Zen in the Fifties: in interaction in Art Between East and West, Geboren to Otahuhu,1996.
8. G. Gelburd, The Trans Parent Thread: Asian Philosophy in Recent American Art, Hofstra Univ. Press, 1990.
9. Shinichi Hisamatsu, Zen and Fine Arts(trans. by Gishin Tokiwa), Kodansha International New York, 1982.
10. Quim Rosell, mnm-Mimallist Interiors, HaperCollins Publ., 1999.
11. 辻性雄, 日本美術の見方, 이원혜역, 시공사, 1994
12. 정진일, 서양의 지혜와 동양의 지혜, 청암미디어, 1994,
13. 동국대학교 불교교재 편찬 위원회, 선(禪)과 자아,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9.
14. 장미진, 예술과 종교-동양 예술과 선종의 관계에 대하여, 예술과 자연, 한국미학예술 학회, 미술문화, 1997
15. 전호상,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현대건축의 이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학위논문, 1995.
16.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뉴욕5건축과 공간운동, 시공사, 1999.
17. 임연웅, 디자인 인간공학, 미진사, 1994.
18. J.Tidbury, ZEN style-balance and simplicity for your home, Universe Publication, 1999

<접수 : 2003. 4. 28>